“계율 공덕, 어떤 수행보다 수승”

범어사, 4월 11~12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1300명 참석
120년 넘게 청정계단 법맥 계승
정여 대종사 “함께하는 보살되길”
동산 율맥 계승, 한국 불교 뿌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120년 넘는 세월 동안 청정계단의 맥을 이어온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이 올해 125회를 맞아 전국 불자들의 서원과 수행의 장으로 장엄하게 봉행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11~12일 경내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에는 7000여 명의 불자가 접수했고, 현장에는 안국선원과 범어사 말사 소속 불자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산림에서는 금정총림 율주 범석 수불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아 법석을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금곡 화봉 스님, 교수아사리는 삼현 원창 스님이 각각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산해 정오, 대해 일광, 이산 법안, 취암 공마, 법해 용학, 지금 목종, 고담 도경 스님이 각각 맡아 계단의 위의를 갖췄다.

수계산림은 첫째 날 오전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 정근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지스님 인사말과 전계사 스님의 심지법문, 사시마지 축원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갈마아사리 스님이 십중대계를 설하는 보살계 법문을 통해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둘째 날은 교수아사리 스님이 ‘사십팔경구계’로 보살계의 정신을 일깨웠으며, 수계식과 계첩 수여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덕보다도 이번 보살계에서 얻은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찬탄하고 “이 공덕은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사회,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되는 보살의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처럼 청정하고 장엄한 계단을 원만히 회향하게 된 것은 수계자 모두의 간절한 발심과 수행정진, 그리고 여러 인연의 정성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 수계산림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보살의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세운 서원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125회를 맞은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유지·전수된 계단으로 꼽힌다. 그 시작은 1901년, 중국 법원사 만하 스님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에서 수계의식을 봉행하면서 비롯됐다. 계맥은 일봉, 운봉, 영명 스님을 거쳐 동산 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동산 스님은 1826년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대은 율사로부터 서상수계를 받고, 금담·초의·범해·선곡·용성 스님에게로 전해진 ‘칠불맥’을 함께 전수해 일봉 계맥과 칠불맥 두 전통을 함께 이은 율사다.

범어사에 따르면 두 계맥을 계승한 동산 스님의 법맥은 석암·고산·수불 스님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범어사 수계산림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추모행사 잇따라

범어사, 학술세미나 · 추모재 등
6월 29일까지 ‘감인대도’ 전시도

동산 혜일 대종사〈사진〉의 수행 정신과 불교 정화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열반 60주기 추모행사가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에서 거행됐다. 추모행사는 학술세미나, 추모재,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행사인 학술세미나는 4월 18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근현대 불교에서의 범어사 위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산 스님의 법맥과 전법 △일제강점기 선학원 설립과 범어사의 역할 △정화운동과 유묵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동산 스님의 유묵을 중심으로 한 특별발표를 통해 예술과 함께한 수행자의 삶을 풀어냈다.

동산 스님의 열반일인 4월 20일에는 범어사 보제루에서 추모재를 봉행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관내 2층 기획전시관에서 동산 스님 열반 60주 기념 특별기획전 ‘인내로 열린 길, 감인대도(堪忍待道)’를 개최한다. 전시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은 ‘감인대도’를 주제로 스님의 삶을 세 갈래의 여정으로 나눠 조명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신축 후 처음으로 실감영상관을 통해 스님의 유묵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감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디지털 연등에 편지를 띄우는 관람객 참여형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정오 스님은 “이번 추모행사는 동산 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수행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며 “범어사는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 수행과 교화, 문화의 장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곳곳에 ‘자비의 등불’ 밝히다

삼광사 · 남구 등 점등식 봉행
“국가와 국민의 안녕 기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전역에서 봉축 점등식이 장엄하게 봉행됐다. 삼광사를 비롯해 부산 진구·남구·사상구·해운대구 등에서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히며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는 4월 12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염원했다. 덕수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을 바로 깨달아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발원으로 오늘 등불을 밝힌다”고 설했다. 주지 용암 스님은 “오늘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전하는 이 빛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진정한 불제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고문 혜총 스님)는 4월 16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행사를 개최했다. 혜총 스님은 “등불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으며, 행사 말미에 불교계 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도 4월 16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찰과 자비로 시대를 이겨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부산사상구경승위원회(실장 성문 스님)도 같은 날 사상경찰서 1층 로비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고 사상구민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했다. 성문 스님은 “사상경찰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경찰서 내에 법당이 있는 곳”이라며 “이 자리가 희망이 다시 꽃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4월 11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었다. 목종 스님은 “오늘 밝힌 봉축탑이 해운대 주민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 생태교육 지평 넓히다

해운대관광고와 녹색학교 협약
플라스틱 사용 감축 등에 동참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해운대관광고(교장 박경흠)와 ‘녹색학교 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 내 생태교육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협약은 불교계를 넘어 비종립 사립학교와의 첫 공식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은 4월 11일 부산 해운대관광고 3층 아람뜰에서 진행됐다.〈사진〉 행사에는 안도 스님과 박경흠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교직원,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관광고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감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빈 그릇 운동’,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녹색학교 실천 항목에 동참하게 된다. 나아가 환경교육 활동, 생태 명상,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재난이자 전 지구적 화두”라며 “인간이 만든 재앙은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향한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흠 교장은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과 함께 하는 생태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창립한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금정중, 해동중 등 불교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녹색학교 사업을 펼쳐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정사, 화엄선사·명상문화원 개원

4월 12일, 개원법회 봉행
명상 힐링 프로그램 다양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원주 지역 포교를 책임질 포교당과 명상문화원을 개원했다.

월정사는 4월 12일 화엄선사 대웅전에서 ‘원주포교당 화엄선사·명상문화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구룡사 회주 적천 스님을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 등 700여 명이 동참했다.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화엄선사와 명상문화원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긍정의 자세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현각 스님은 치사를 통해 “바른 생각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화엄선사가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여는 도량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선사와 함께 개원한 명상문화원은 2층 규모로 카페와 명상 공간으로 구성됐다. ‘엠사이트(Meditation·Silence·Insight·Truth·Enjoyment) 힐링 플랫폼’을 표방하는 명상문화원에서는 화엄선 명상, 싱잉볼 소리 명상, 선 요가, 문화사 강의, 단청 그리기 치유, 자연 운동 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명상문화원 개원을 축하하며 참석 대중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양양불교사암聯, 봉축점등식 봉행

4월 11일, 600여 대중 동참

양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득우 스님)가 4월 11일 낙산사 대형주차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양양군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다.〈사진〉

점등법회에는 양양불교사암련회장 득우 스님(진전사 주지),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 낙산사 부주지 법인 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박동수 양양군 부군수,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 등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득우 스님은 “우리가 밝히는 연등에 담긴 염원이 부처님께 닿아, 모든 고통이 소멸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화합의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어지러운 사회를 비추는 지혜와 희망의 기운을 전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고운사 등에 기금

4월 12일, 운람사 · 대곡사 등 순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찾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4월 12일 사찰순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운람사, 대곡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화마로 소실된 고운사에는 300만원, 운람사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며 회복과 재건을 응원했다.

송재린 단장은 “사찰 순례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불자 간 연대와 나눔의 실천”이라며 “특히 이번 순례는 산불 피해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전달받은 고운사와 운람사 측은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통해 도량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선교종, 세계평화 기원 수륙대재

4월 6일, 경주 감포 바다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범각 스님)이 4월 6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서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기원 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 총무원장 범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고무로 시작된 수륙대재에서는 수륙고혼을 달래는 살풀이와 지전무가 이어졌고, 극락무와 장엄염불로 마무리됐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쟁과 재난으로 세계 곳곳이 죽음과 고통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륙대재는 유주무주 고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귀한 의식”이라며 “불교정신의 회복과 실천을 통해 이 땅에 다시금 희망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